



보도시점 2026. 4. 8.(수) 14:30 배포 2026. 4. 8.(수) 13:30

재정경제부, 중동 상황 관련 석유수입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금융지원 점검

- 문지성 국제경제관리관, 석유수입기업 금융지원 점검회의 개최 -
- 수출입은행의 적극적인 금융지원과 석유공사와의 조속한 협업 방안
마련 주문 -

문지성 국제경제관리관은 4월 8일(수) 우리 석유수입기업 및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석유공사와 함께 석유수입기업 금융지원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중동전쟁으로 인해 우리 석유화학기업들이 직면한 원유수급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우리 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석유수입기업 금융지원 점검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26.4.8(수) 14:30~15:30, 정부서울청사
- 참석자: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주재), 대외경제심의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석유공사, SK에너지, S-Oil,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 등

참석 기업들은 중동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 및 나프타 등 핵심 원자재의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영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금번 상황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기업들은 ▲국제 유가 안정 시까지 피해 기업 대상 정책자금의 안정적인 공급, ▲원유·나프타 구매 자금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대체 수급처 발굴 관련 지원 등을 건의하였다.

문지성 국제경제관리관은 “금일 발표된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의 일시적 봉쇄 해제로 원유 수급 여건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도 있으나, 향후 전개 상황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원유 수급과 금융지원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지성 국제경제관리관은 최근 확대된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7→10조원) 등을 통해 수출입은행이 신속히 금융지원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정부는 수출입은행과 한국석유공사간 협력을 통해 원유 확보를 위한 유동성 지원 등 원유 수급 안정화 조치도 병행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업계 및 관계 기관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 | | | | |
|-------|------------------|-----|-----|------------------------|
| 재정경제부 |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 책임자 | 과 장 | 최지영 (044-215-7610) |
| | | 담당자 | 사무관 | 안승현 (ashcrow@korea.kr) |

